

시간을 내비게이트하다!

하나둘셋¹²³은

일상 속에서 메이킹을 도와주는
음성비서 서비스입니다.

하나둘셋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둘셋의 음성 서비스는 메이커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고 메이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둘셋은 요리를 비롯해, 장난감, 게임, 기술, 운동, 인테리어, 화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함께 합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 쉽게 잘 나오던데,
오늘 한 번 해 먹어 볼까..?』

샐리야, 굴밥 어떻게 만들어?

굴밥의 재료는 굴, 콩나물, 쌀, 김, 소금, 참기름, 깨,
고춧가루, 다진대파, 다진마늘, 쪽파, 간장입니다.

『오, 재료는 다 있네.』

샐리야, 굴밥 레시피.

굴밥의 재료는 굴, 콩나물, 쌀, 김, 소금, 참기름, 깨,
고춧가루, 다진대파, 다진마늘, 쪽파, 간장입니다.

『아, 클릭해서 봐야 하는구나.』

10분 뒤

샐리야, 굴밥 레시피.

굴밥의 재료는 굴, 콩나물, 쌀, 김, 소금, 참기름, 깨,
고춧가루, 다진대파, 다진마늘, 쪽파, 간장입니다.

30분 뒤

샐리야, 굴밥 레시피.

굴밥의 재료는 굴, 콩나물, 쌀, 김, 소금, 참기름, 깨,
고춧가루, 다진대파, 다진마늘, 쪽파, 간장입니다.

30분 뒤

샐리야, 굴밥 먹기 힘들다, 그치?

‘굴밥 먹기 힘들다’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어요.

단문 질의응답 중심

핸즈프리 어라운드

시청각 이중으로 인지 부하

시간 관리 불가

스마트폰, PC에서 저장해둔
레시피를 클로바에서 확인

레시피를 실시간으로 안내

가진 재료에 맞추어 안내

레시피에 맞게
타이머도 자동으로 설정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와 연동

샐리야, 지난 번에 산 굴밥 레시피 알려줘.

집밥 백선생 굴밥 레시피가 저장되어 있네요.
굴밥의 재료는 굴, 쌀, 파, 청양고추, 간마늘, 진간장,
굵은 고춧가루, 참깨, 설탕, 참기름입니다.
무,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쪽파, 버터도 있으면 좋아요.
굴밥의 총 요리 시간은 45분 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둘셋 안내를 시작할까요?

응, 시작해줘.

우선 쌀을 불리겠습니다. 쌀을 꺼내 물에 담가주세요.

샐리야, 했어.

무, 새송이버섯, 표고버섯이 있다면 꺼내주세요.

없어. 다음.

지금부터 30분 동안 쌀을 불릴 거예요.
시간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30분 후 타이머를 맞추겠습니다.

다음.

쌀과 굴을 넣고 밥을 안치겠습니다.
우선 굴을 꺼내어 씻어주세요.
굴은 익으면서 쪄그라들기 때문에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굴의 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샐리야, 했어.

씻어 놓은 쌀과 굴을 밥솥에 넣어주세요.
쌀을 먼저 넣고 그 위에 굴을 올려주세요.

샐리야, 했어.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른 후,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샐리야, 했어.

소비자

메이킹으로 즐거운 여가 생활

- 새로운 형태의 '사용설명서'
- 효율적인 인지 능력 활용
- 효율적인 시간 관리, 생산성
- 새로운 메이킹 비법 공유, 네트워킹
- 정서적 교류 증가

판매자

제품/서비스의 커뮤니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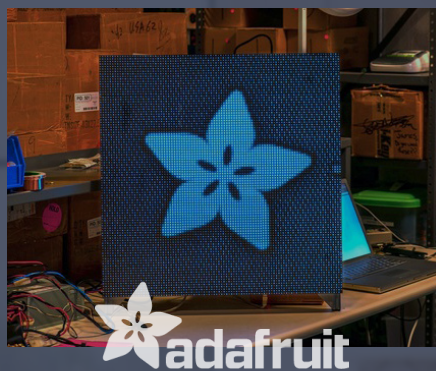
- 물리적 제약 극복
- 소비자 맞춤 비법 공유
- 정서적 교류 증가
- 소비자 피드백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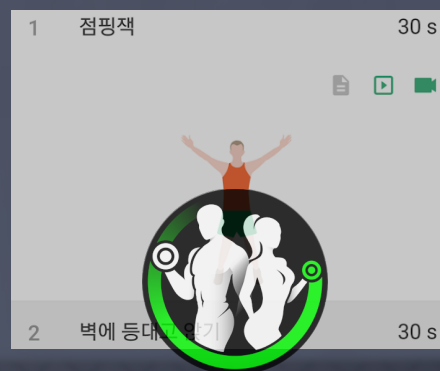
메이킹 커뮤니티 형성

- 판매자-소비자
- 소비자-소비자
- 온라인-오프라인
-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
(예. 톡톡, 스토어팜)

기술



운동



인테리어



화장

